



Occasional Paper Series

06-05

일본 경제회생과 한국경제

Japan's Economic Recovery: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ukagawa Yukiko
(深川 由起子)

August 2006

필자 약력

Fukagawa Yukiko (深川 由起子)

- 現 일본 Tokyo大 교수
- Waseda大卒, Yale大 석사. Waseda大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 일본 무역진흥회(JETRO), 장은종합연구소 등을 거쳐 Aoyama大 상학부 교수 역임
-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Joint Study Group Report”, “Korean Economy in Transition” 등 주요 논문 및 저서 다수

일본 경제회생과 한국경제*

Fukagawa Yukiko

오늘 강연 주제는 일본의 경제회생과 이것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것이다. 본인이 일본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본경제와 한국경제를 비교함으로써 최근 몇 년간의 일본 경제회생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인들은 일본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본 경제회생의 일부 성공사례는 많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공일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한-일 FTA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질문에 대답하겠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주한 일본대사관의 한-일 FTA 전문가도 본인과 함께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우선, 일본경제가 정상궤도를 되찾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구조가 모두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경기주기에 플러스적인 기여를 해온 것은 대부분 공공부문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은 민간부문이 일본경제를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내수가 일본경제를 위축시키곤 할 때, 무역의존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이 어느 정도 플러스적인 기여를 해왔다.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미국과 거의 비슷하고 한국에 비해서는 아주 낮다.

셋째, 일본 정부가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 관계로 대부분의 공공수요가 건설산업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선도 기업들의 투자가 내수부문의 소비증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경제와 관련한 더 큰 뉴스는 일본이 드디어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장기불황의 고통에서 거의 벗어났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은 지금까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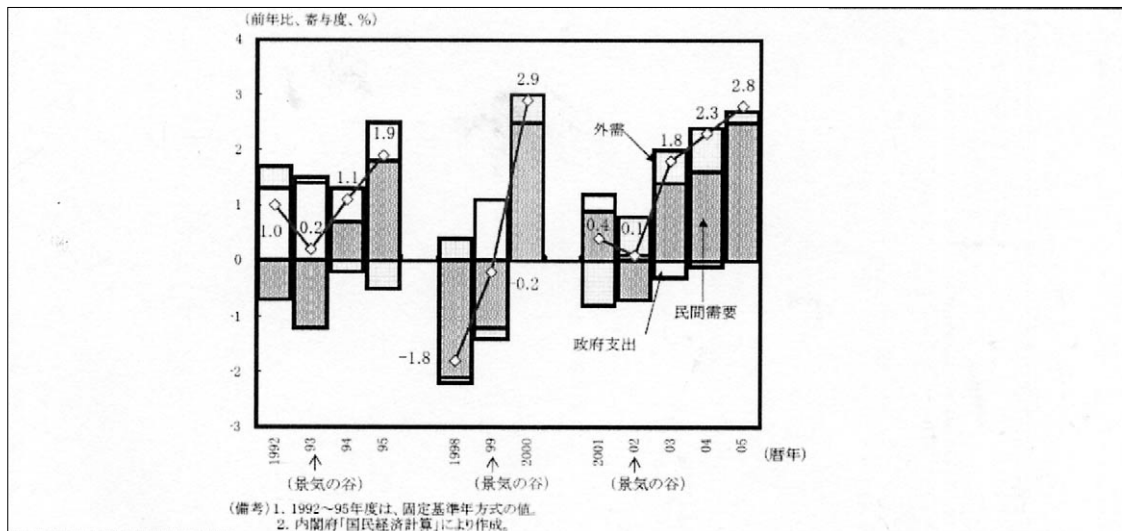
*이 글은 2006년 3월 28일 개최된 특별강연회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어느 경제학 교과서도 설명할 수 없는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유일한 경제이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불황은 1992년에 거품경제가 붕괴된 후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커짐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격차는 일본의 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확대되었었지만, 소비회복과 대외수요 덕분에 마침내 축소되기 시작하고 있다.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이루어져 왔다. 물론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회복으로 유지되었다. 왜냐하면 일본의 주요 은행시스템은 막대한 금융 자산을 기업의 주식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에 1995년 및 2000년의 경우와 같은 긍정적인 징후가 몇 번 있었다 (<그림 1>).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년의 경우는 1995년과 다르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2000년에는 미국의 IT 거품이 절정에 달했다. 따라서 민간부문 또는 IT 관련 투자가 증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정부가 거의 대부분 기여했지만 이는 지속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2001년 이후부터는 민간부문이 구조변화에 계속 기여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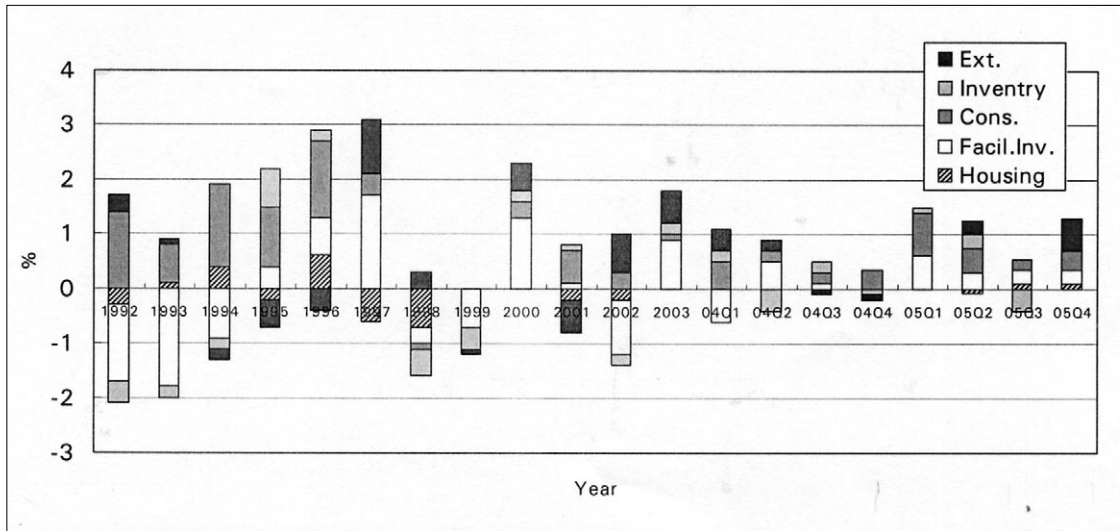
<그림 1> Contribution by public/private sector



1990년대 초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줄어 든 주요 요인은 건설부문의 기여 때문이었지만, 2001년 이후에는 설비투자가 플러스적인 기여를 했다(<그림 2>). 또한 2001년 경에 대미 및 대중국 수출이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함으로써 대외부문도 기여를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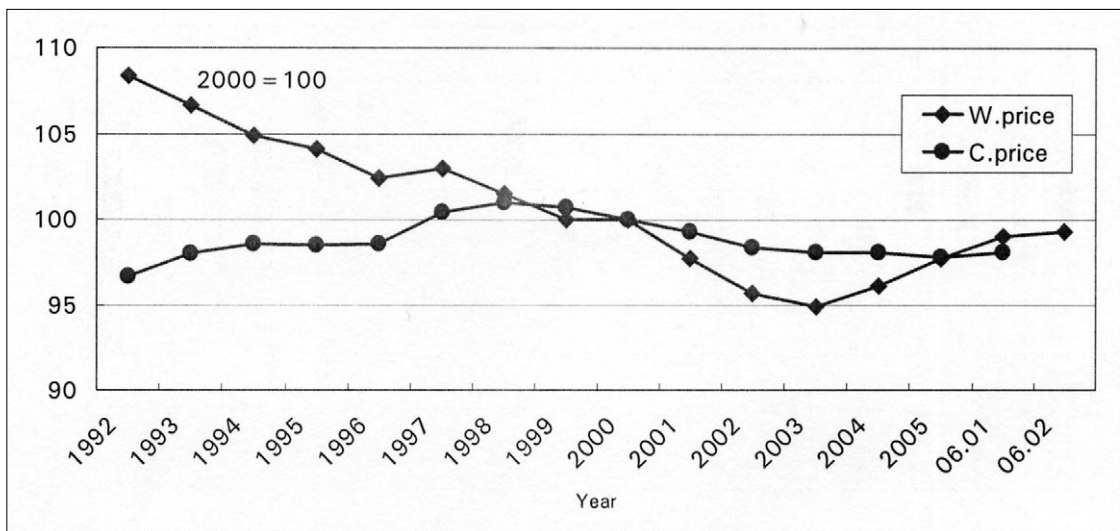
으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림 2〉 Contribution by dem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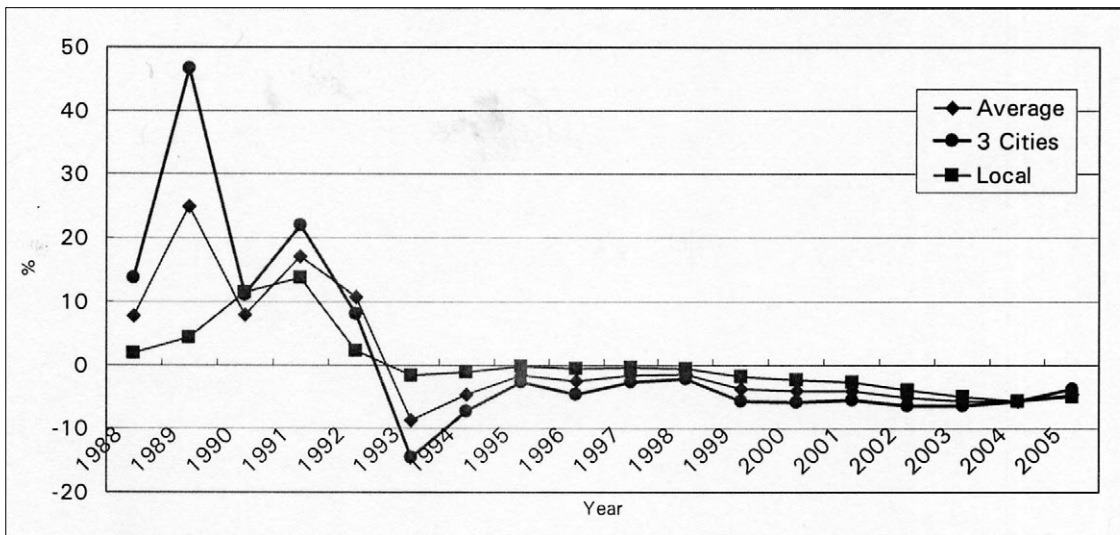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으로써,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의 도매물가가 2000년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도매물가는 2003년에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도매물가보다 변동 폭이 덜하기는 하지만 소비자물가도 2006년에 마침내 회복되기 시작했다.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양적 완화정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림 3〉 Getting out of deflation: 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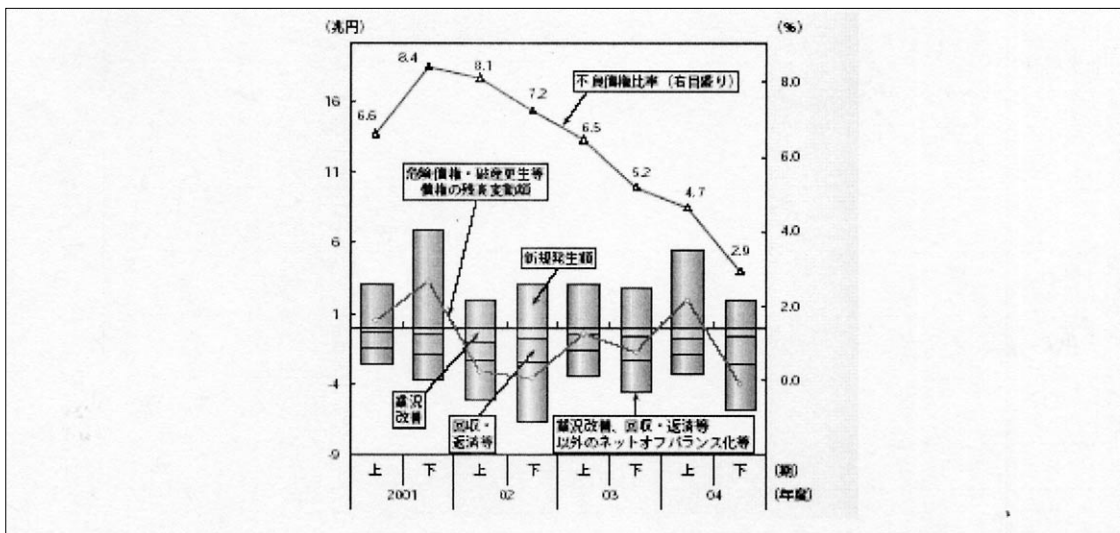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일본경제의 붕괴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로 촉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2005년에 약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 플러스에 가까운 기록을 보였으며, 현재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아주 미약하다(〈그림 4〉). 〈그림 5〉는 은행 대출부분의 부실채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규모가 점점 작아져 지금은 3% 이하 수준이다. 따라서 부실채권은 더 이상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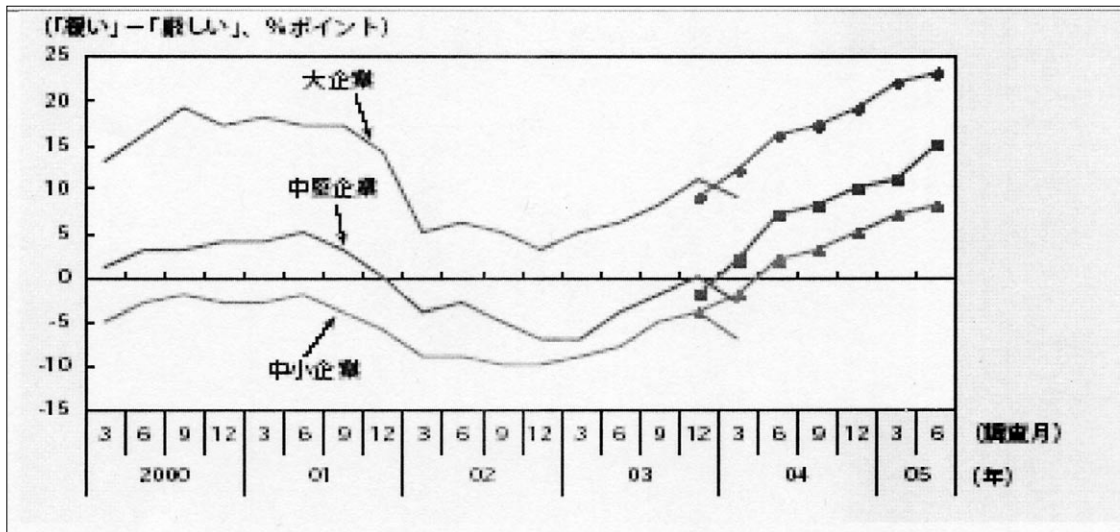
〈그림 4〉 Getting out of deflation: Prop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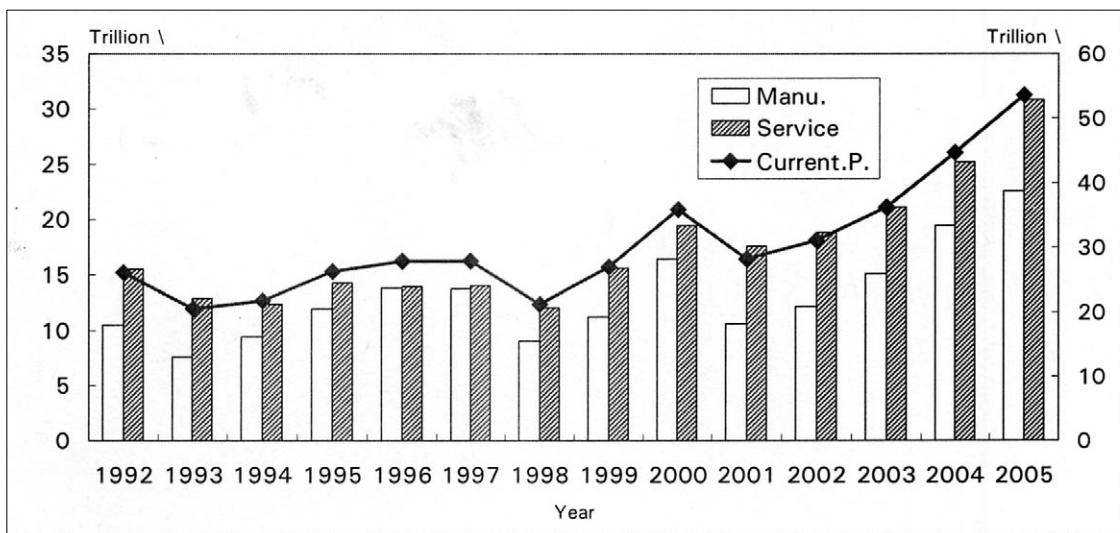
〈그림 5〉 Getting out of deflation: NPL



〈그림 6〉 Getting out of deflation: Financial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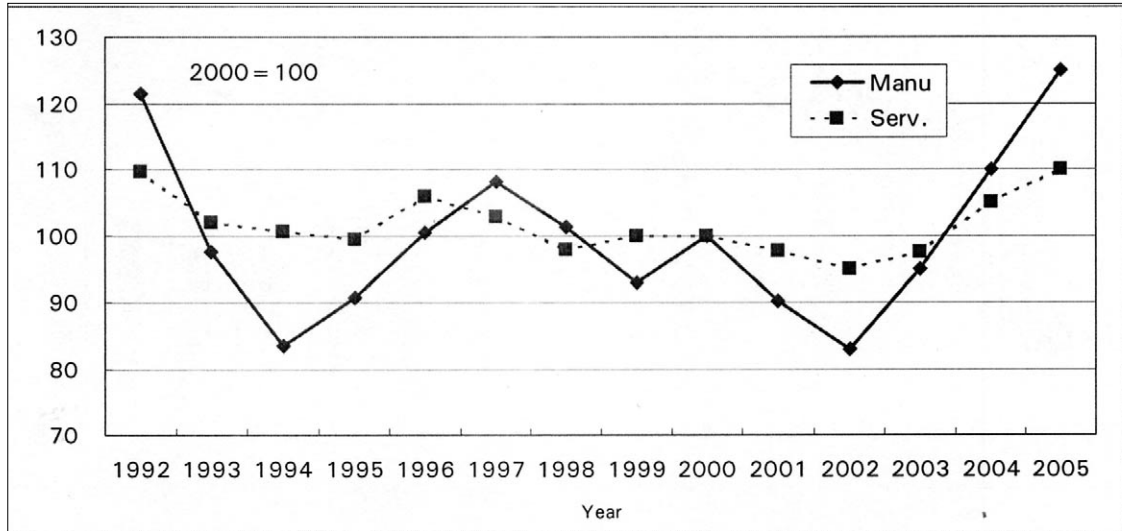
〈그림 7〉 Getting out of deflation: Company pro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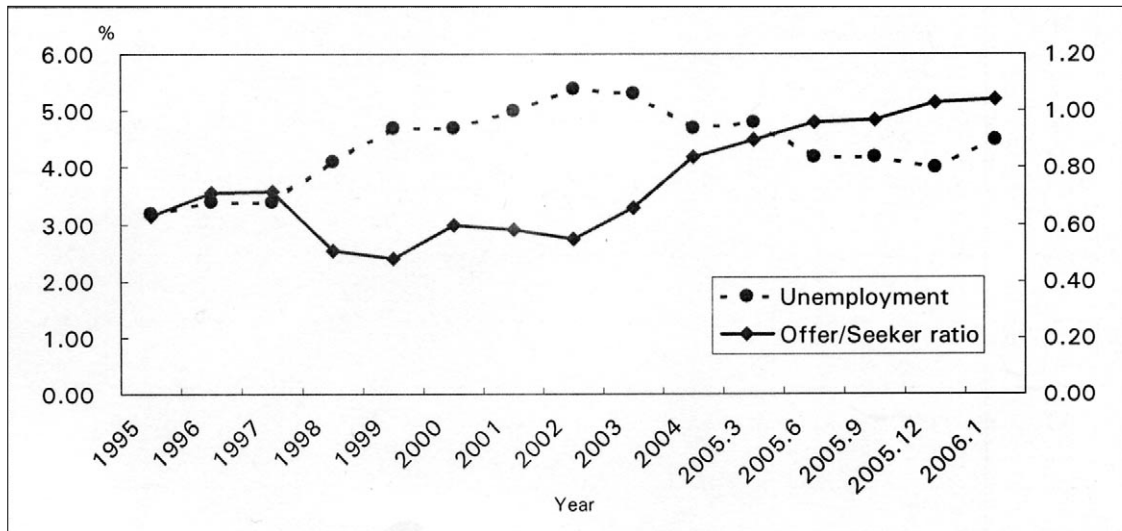
〈그림 6〉은 금융부문 구조조정 덕분에 기업의 금융환경이 이전보다 더 나아진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자료는 2003년도에 경기가 바닥을 친 후 기업인들에게 금융차입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조사한 것으로, 쉽다는 대답에서 어렵다는 대답을 뺀 백분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에서 먼저 나타났다지만 곧이어 중소기업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2001년 이후에는 기업이익도 급격히 회복되었다. 〈그림 7〉의 곡선그래프는 민간부문의 경상이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2001년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경상이익은 제조업 뿐만 아니

라 생산성이 낮은 일본 서비스업에서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8〉 Getting out of deflation: Investment



〈그림 9〉 Getting out of deflation: Empl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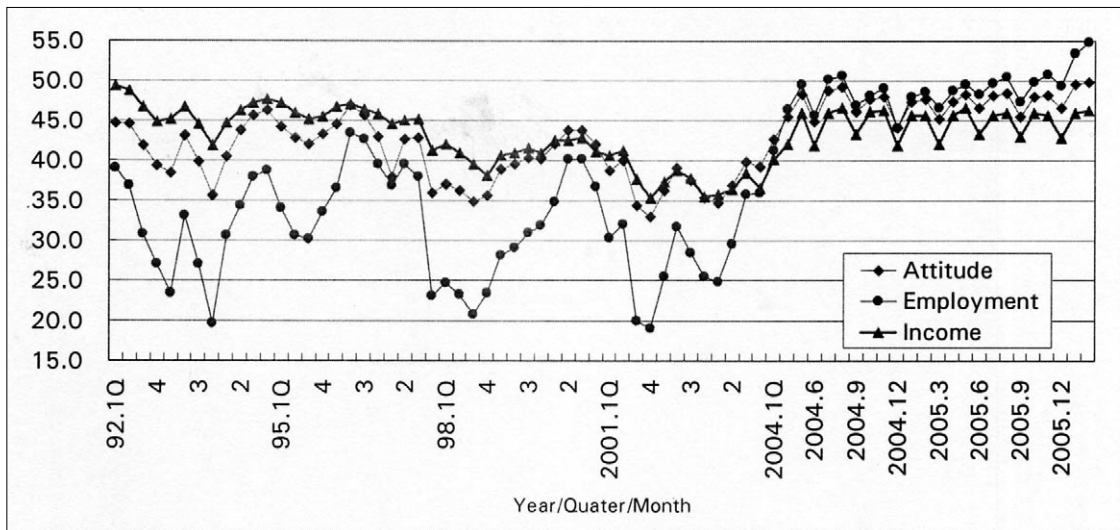


2000년도를 100으로 본 투자지수에서는, 제조업이 플러스를 기록했던 1997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바닥을 쳤다(〈그림 8〉). 하지만 투자수준이 빠르게 회복되어 거품붕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도 제조업 부문을 따르고 있다.

일본에서 큰 문제는 항상 실업이었다. <그림 9>는 실업률 및 구인/구직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의 총인구 대비 실업률은 2002년에 사상 최고치인 약 6%에 달했다. 그러나 구인/구직률은 2006년에 1을 넘어섬으로써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역시 커다란 진전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상태이다.

즉,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이 안정되면서 소비 또한 점차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10>). 소비심리는 주로 소득전망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실업률이 소비심리와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일본은 종신고용에 익숙해 있는 관계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을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대출금을 안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지 몰라 당황해 했었다. 그래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용조정이 종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고용전망 및 소비심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림 10> Getting out of deflation: Consumption



현재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거의 사라져 안정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른바 과잉투자, 고용초과, 과다차입의 3중 압력도 다소 약화되었으며 미국 및 중국에 대한 대외수요 전망도 낙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약 2%의 정도의 완만한 회복세가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일본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다. 기업이익, 투자, 부동산, 주식시장, 고용소득 및 소비간의 플러스적인 연계관계가 낙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약 1.3% 정도의 부정적인 전망치를 내던 OECD조차도 이러한 전망치를 2%로 이미 수정한 바 있다. 이는 재정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결과, 일본경제가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의미이다. 막대한 공공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률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정부개혁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부채는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다수 국영 또는 준(準)국영 서비스부문의 민영화가 불가피하다.

전형적인 것이 의료 및 건강 서비스부문이다. 일본은 현재 5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인 초(超)고령화 사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부문이 일본으로서는 큰 걱정거리이지만, 일련의 규제개혁 및 합리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이 부문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교육 또한 세계화의 경쟁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일본은 교육제도를 대폭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에 대한 동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사실, 일본에서는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 문제의 잠재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다. 노령화란 젊은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저축률 하락을 통해 일본경제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일본의 임금구조는 이미 바뀐 상태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들은 여전히 일본이 엄청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작년부터는 무역수지가 아닌 자본수지에서 더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본경제가 노인들이 연금 또는 해외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젊은 세대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 노동자들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고 실직 상태인 관계로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불평이 많다. 설사 소규모 기업이나 조직에서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숙련된 약간의 기술을 배운다 하더라도 시간제 근로나 수공작업 종사자일 경우, 노동력의 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자본의 문제도 있다.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전망도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 및 자원 양쪽 모두에 대한 부존자원이 빈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및 자원의 국제가격이 현 상태로 계속되면 거시경제는 지속적인 하향압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제약이 에너지절감 기술이나 대체에너지 개발하는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계기가 투자유치 확대 측면

에서 일본의 기업환경을 개선시키고 있다.

몇 가지 이유에서 볼 때 일본의 투자심리는 한국과 크게 다르다. 많은 기업들이 대중국 FDI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던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온 나라가 이른바 ‘공동화 현상’에 대한 논란에 빠져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일본에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구조조정을 겪은 많은 기업들이 생존에 필요한 자국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내수시장으로 복귀하려고 노력했다. 서비스부문에서의 새로운 수요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개선된 기업환경이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요를 찾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영 서비스부문의 민영화가 일본 내 투자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일본 민간부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산업간 연계, 이른바 B2B(Business-to-Business) 네트워크일 것이다. 일본 IT시장은 소비자 측면에서 급성장한 한국의 경우와 달리, 기업 측면에서 더 크게 성장했다. 예를 들자면 토요타(Toyota)는 거래기업과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러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소규모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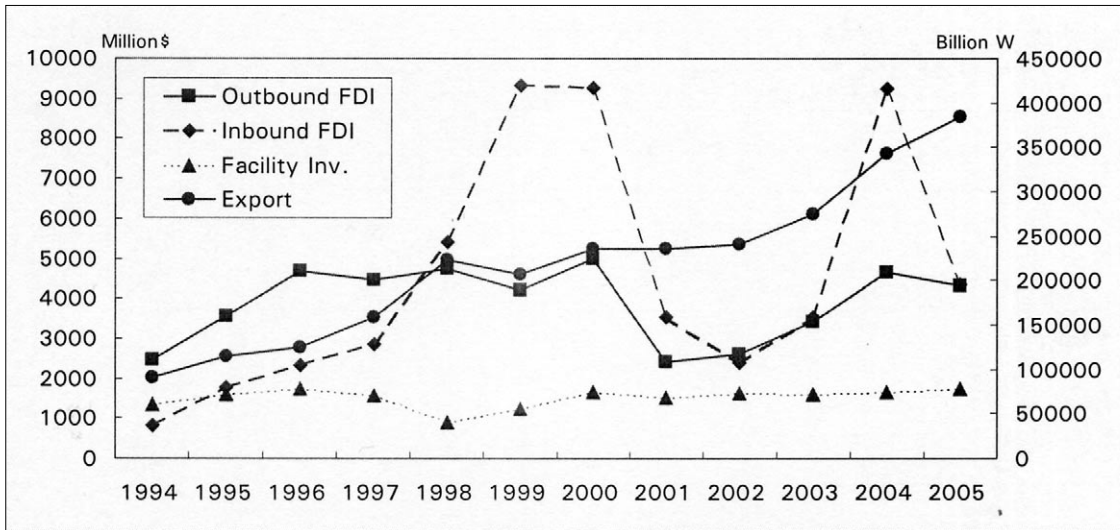
또한 토요타는 자원제약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사업기회로 바꾼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빈약한 석유환경은 토요타로 하여금 연료 초절감 차량 제작에 대한 압력을 끊임없이 받게 만들었다. 일본의 기술개척 기업들은 신기술을 통한 총체적 혁신보다는 해당 부문을 위해 이러한 제약을 하나씩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주 안정된 방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노령화, 고유가, 공공부문 부채와 같은 제약에 묶여있는 상태라면, 이는 자동적으로 일본 내수시장이 가장 눈에 띄는 시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와 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매달릴 것이다. 투자가 일본으로 다시 복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 기업들은 세계화에 집중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는 1997년의 금융위기가 한국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킨 탓도 있다. 그래서 소비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 있었던 반면, 삼성 및 LG와 같은 안정적인 기업들 대부분은 한국 내수시장을 무시한 채 더욱더 세계시장에 의존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투자와 혁신을 자국에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 여

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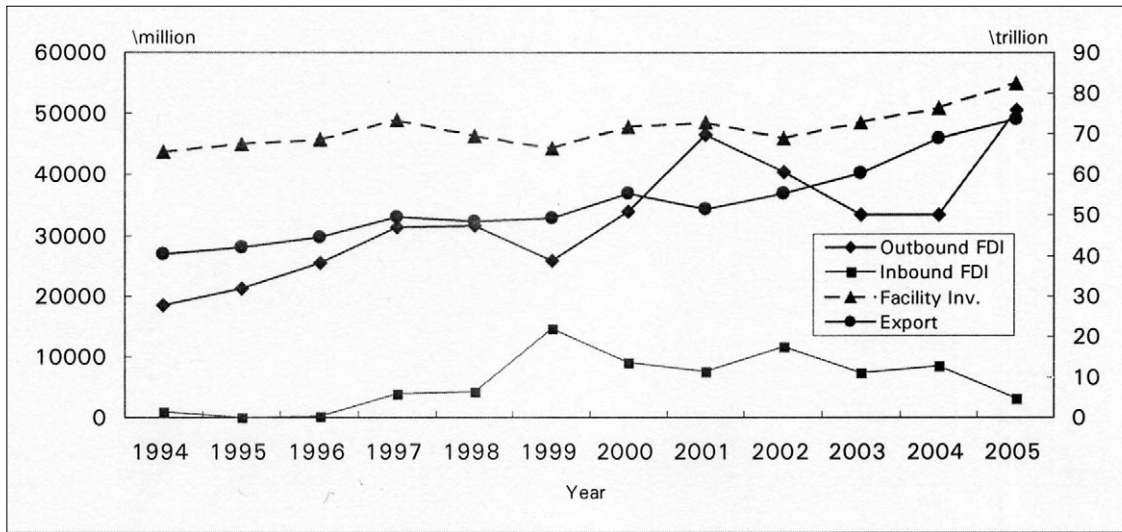
한국은 이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국제적인 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림 11>의 수출은 한국경제에서 가장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부문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설비투자는 바닥세이다. 과거 한국의 경우 수출이 증가하면 항상 설비투자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대외수요에 대한 연계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강조해온 FDI 국내유치는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덕분에 정점에 달했다. FDI 국내유치는 2004년에 다시 한 번 정점을 이루었으나 그 이후 그러한 성장세가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FDI 해외투자는 수출경기를 따라가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투자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시장정책은 국내 투자나 혁신보다는 수출대용 FDI를 포함한 세계화쪽으로 방향이 조정되어 있으며, 투자, 고용, 소득, 소비 간의 연계가 다소 무시되고 있다.

<그림 11> Export and Investment (Korea)



일본의 경우는 아주 다르다. 특히 2003년 이후 일본의 국내 설비투자는 수출과 더욱 일치되기 시작했다(<그림 12>). FDI 해외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중국 및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 진출했던 관계로 2001년에 정점을 이루었으나 그 이후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 Export and Investment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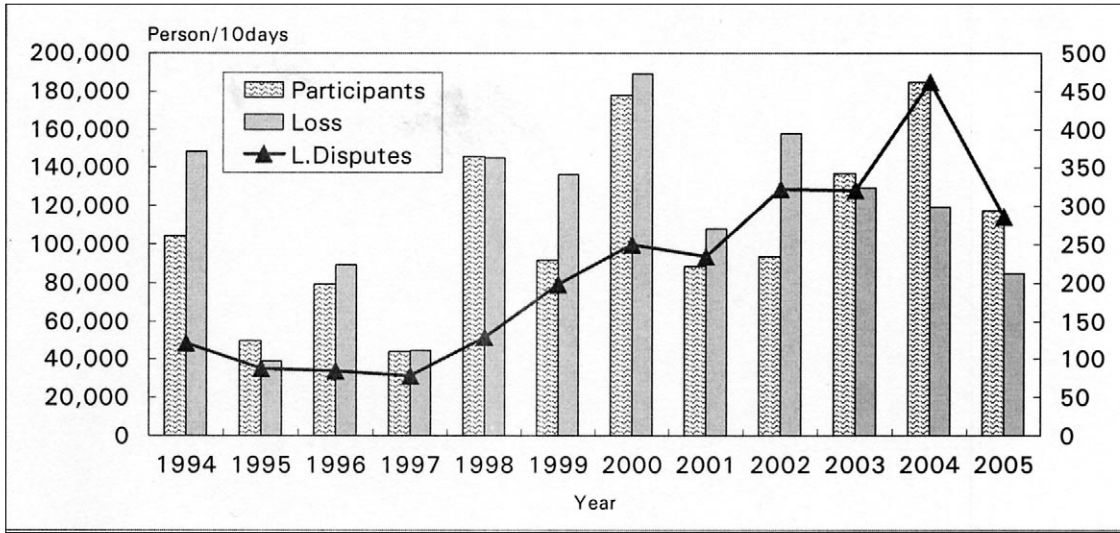


일본의 투자가 자국으로 복귀한 동기는 기업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과 기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과 관련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내수시장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도록 만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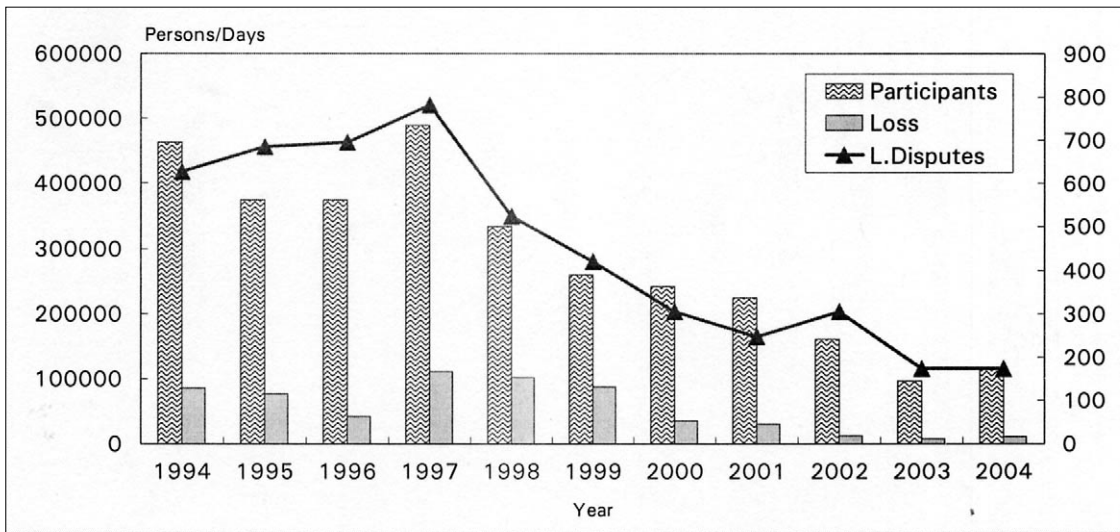
구조조정 당시 일본은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종의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대다수 기업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구조조정은 임금삭감이었다. 협력하는 문화덕분에 주요 기업들은 노동조합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임금삭감을 수용했다. 그런 다음 근로자들을 보다 플러스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저렴하고 고용신분에 대한 보장이 약한 시간제 근로자들을 그 자리에 채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예상치 못한 유연성이 생겨났던 것이다.

고용, 전직(轉職)시의 임금, 창업 잠재력에 대한 유연성 면에서 볼 때, 결국 가장 유연성 있는 노동시장은 미국이고 독일은 그다지 유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시각이다. 독일은 임금 면에서 보면 취약한 노동조합과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일본보다 유연성이 훨씬 덜하지만, 산업별 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관계로 전직은 비교적 더 용이하다. 그러나 구조조정 기간 동안에 일본과 독일 양쪽 모두는 창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임금 면에서는 독일과 미국에 비해 일본이 아직까지 훨씬 더 유연하다.

〈그림 13〉 Labor Disputes (Korea)



〈그림 14〉 Labor Disputes (Japan)



한국의 경우 위에서 비교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 고용과 임금 면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노동조합으로 인해 최소한의 유연성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투자 초기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창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전직도 쉬운 것 같지 않다. 따라서 미국 수준의 유연성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아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13〉은 한국의 노사분쟁을 나타내는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 노사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심지어 구조조정이 있었던 2001~2003년 기간 중에도 노사분쟁은 계속 감소하였다(〈그림 14〉).

노동이동성과 관련해서는, 이직의 기회보다 구직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 본인이 한국의 노동이동성에 대해 연구할 기회는 없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와 다를 것이다. 일본의 노동이동률은 구직자의 30% 정도로 상당히 높다. 최근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 나아졌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다. 기업 경기가 좋아진 관계로 사람들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졌으며 취직률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제조업이 일본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온 것은 제조업보다 서비스부문이었다. 업종별로 볼 때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해온 분야는 의료분야가 첫 번째이고 IT 등 기타분야가 두 번째이다.

일본의 경우는 노사간의 대화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비해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금융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자금압력을 받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경영난이 심해져 자금을 더 끌어 모아야 하는 경우, 경영진에게는 노동조합과 대화를 시도할 유인(誘因)이 없다. 일본은 대부분의 경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노사 및 인적자본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까지도 인적자원 관리는 숙련도 축적과 기술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게는 노사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노동시장에 대해 가장 인상적인 것은 구직안내 서비스의 정교함이다. 일본의 구직안내 서비스를 정부가 독점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 시장 수요로 인해, 전직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특히 지난 5년 동안 아주 정교해졌다. 구직안내 서비스는 전직 서비스와 함께 발전해 왔다.

이는 한국의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함의를 갖는다. 일본 역시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이 약 10%에 이르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실업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대졸 청년의 97%이상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향후 5년간 베이비붐 세대들의 집중적인 은퇴가 이루어져, 이들을 보충하기 위한 젊은 노동력이 아주 귀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문제 또한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청년세대를 훈련시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

훈련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대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노동의 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기업들은 숙련도를 높이고 두 세대 간에 기술을 이전시키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세대 근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기성세대(베이비붐 세대) 근로자들을 앞으로 5년 정도 더 계속 고용하려 한다. 한편, 젊은 세대 근로자들은 IT응용기술 발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성세대의 숙련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두 세대를 훌륭하게 결합시켜 노동시장을 건설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것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와 같은 노력이 정치적 인센티브(incentive)에 의해 정부차원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라 경쟁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민간부문에 의해 자발적으로 유발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 심지어 본인세대와도 다른 젊은 세대의 직업 가치관 및 윤리관 때문이기도 하다. 본인 세대가 한참 일 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던 1980년대 초에는 일 자리를 구하는 목적이 자신의 능력에 도전하거나 자신을 단련시키고자 함이었다. 일본 사회에서 이와 같은 자세는 줄어들었고, 대부분이 인생을 보다 쉽게 살기 위해 직장을 구하고자 한다. 그래야 인생을 즐기기 위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과 다른 가치관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에게서 장기계약 형태의 굳건한 약속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또 다른 이슈는 아주 광범위한 경제 협상인 한-미 FTA 협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FTA와 함께 본인이 한국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약) 협상의 중요성이다. 인적 자본 측면,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보면 인구이동에 관한 협정이 있는 MRA는 한국 내 일자리 창출 및 창업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간에는 IT 기술에 대한 공동자격 기준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협상방식은 결국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갖는데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유일한 원천은 끊임없는 개혁이라는 점이 일본의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 없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투자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라는 점도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내수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을 보다 큰 시장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장 개혁 또한 개혁

이 필요하지만 민간부문 간의 협력과 대화가 정부의 개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유발된 규정과 규정집행만으로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노령화 사회에 있는 우리에게서 결국 인적자원 관리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할 여지는 많을 것이다.

질 의 · 응 답

[질 문] 경제성장 동력인 중국의 부상이 한국 및 일본의 장·단기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 문] 최근의 통화공급추세는 어떠한가?

[질 문] 지역적 관계에서 볼 때 아시아 경제는 고속성장을 위한 또 한번의 역주(力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주로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만일 미국이 적자규모를 줄여서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면 중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간접적으로는 중국에 조립부품을 공급하는 모든 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경직된 노동시장의 취약성과 위험성이 나타내기 시작하는 때이다. 따라서 지금이 저(低)성장 및 경기침체기일 경우 노동시장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나라들은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를 훨씬 더 수월하게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경기하강 국면이 유연성을 갖춘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 변]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부상과 관한 것으로, 달러화의 붕괴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잠재적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세 번째 질문과 관계된 것이다. 물론 일본은 특히 해외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수익구조에서 보면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붕괴는 충격적일 수 있다. 심지어 미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일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미국경제의 붕괴가 다시 중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부상은 지금까지 일본이 개혁을 지속하는 커다란 기회였으며, 일본으로서는 1990년대 말에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거시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잠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통합 및 협력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과 중국 간의 정치적 분쟁이 양국 FTA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경제교류의 장벽이 더 높아질 여지마저 있다.

FTA보다 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금융협력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또 다시 금융위기를 겪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통화바스켓제도와 아시아채권시장을 시작으로 하는 아시아 공동통화에 쏠려 있다. 그래서 정치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은 여전하다. 하지만 통합노력에는 실질경제 부문과 금융부문 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사실, 동아시아가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본인은 일본 노동시장의 전망을 그리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정부 프로그램을 믿지 않고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중국 및 인도 등으로 인해 심해지는 경쟁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이 중국과의 경쟁을 포함한 종합적인 충격을 완화시킬 만큼 유연한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유럽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아마 한국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노동시장의 개혁을 대해서도 더욱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인 금융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의 역사적인 양적 통화완화 정책이 결국 종식되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시장에 필요한 만큼 통화를 공급하여 금융위축을 막는 것이었다. 현재 일본에서 한 가지 바뀐 것은 대규모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시스템을 설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위축이 더 이상 쉽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손쉬운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나아가 거시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려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시스템 때문일 수도 있다.

[질 문] 한국경제가 회복되기 위한 적정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이며, 한국 민간부문의 설비투자를 증진시키기 하기 위한 최선의 산업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 변] 첫 번째 질문은 본인보다 사공일 이사장님께 드려야 할 질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경제는 성숙되기까지 5~6% 정도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선진경제인 미국의 경우는 아직도 3~4%의 성장이 가능하

다. 따라서 본인은 특히 지난 3년간 한국의 경제실적이 성장잠재력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잠재성장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지적한 투자이다. 한국의 설비투자가 부진하게 되면 잠재성장률 역시 계속 위축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달러 대비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수출부문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한 한국경제는 무난하게 4~5%의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마저도 지난 3년간 설비투자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2~3%로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총 6%의 성장을 이룰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다지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본인은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 큰 시장과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 및 일본 시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의 정책당국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부문은 인구 규모 면에서 잠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영어를 잘 구사하며, 적절한 경쟁동기가 부여되면 아주 생산적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인적자원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주변국들과의 경제통합은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한국 내 서비스부문 및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질 문] 한-미 FTA 협상 개시에 대한 귀하의 시각은 무엇이며, 한-미 FTA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또 앞으로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답 변] 한국측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사안들은 대미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용단이다. 잠재적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교육수준, 정보, 깊이, 시장규모 등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최상의 파트너일 것이다. 이번 협상이 정치적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미 FTA 협상의 성공은 일본으로 하여금 시장개방의 폭을 더욱 확대하도록 만들 것이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외부충격을 개혁 및 잠재성장력 확대로 연계할 방법에 관해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FTA 협상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좀더 충분히 해야 했다. 보다 경쟁적인 환경과 더욱 자유로워진 경제요소의 이동성에 의해 특히 서비스 및 중소기업 부문의 산업구조를 정교하게 만들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보면, 한-일 FTA가 갖는 주요 효과는 한-미 FTA의 경우와 다소 비슷할 것이다.

Japan's Economic Recovery: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ukagawa Yukiko

Today's topic is Japan's economic recovery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m not a Japanese economy expert, but what I will be able to contribute is a comparison between Japanese and Korean economies to withdraw some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recovery in the recent years. But of course we Japanese all know that there are many tasks still remaining on our side. However, you don't have to learn from the failure of Japan, you can learn more from some of the success in the Japanese economic recovery.

As Dr. SaKong mentioned,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Japan-Korean FTA, I will try to answer any questions with utmost efforts. Also, my colleague who is of course a specialist on Japan-Korean FTA here from the Japanese embassy will collaborate with me to answer any questions you may have.

So the Japanese economy has gotten back on the right track. In the process, what is most significant is that the core structure has totally changed. In the past decade, it has been mostly the public sector that has been contributing positively towards the business cycles, but in recent years, the private sector has been totally leading th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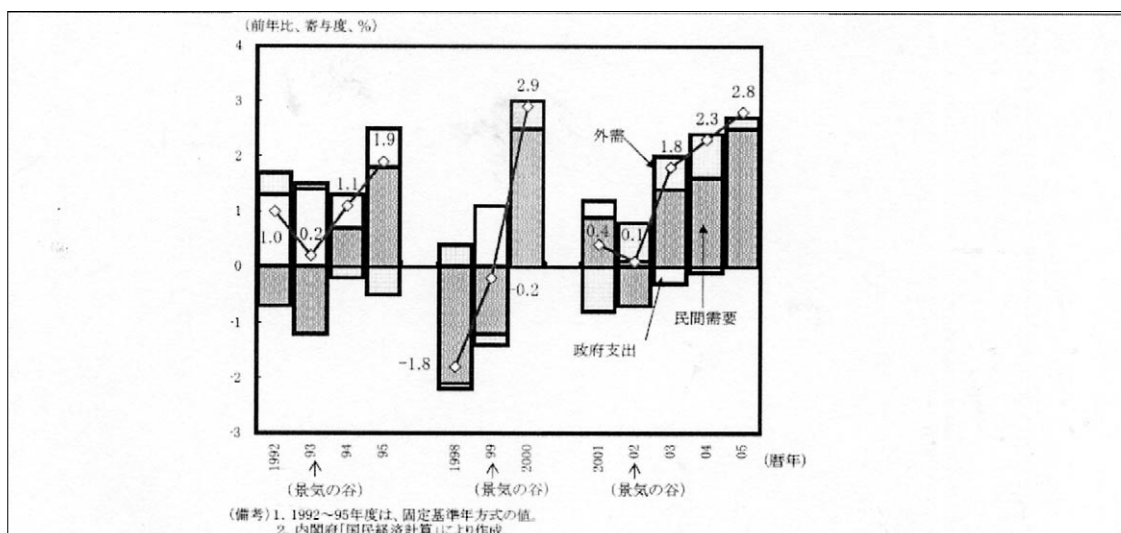
Secondly, when the domestic demand used to be shrinking Japan, in contrast it was the external sector that has contributed something positive, although the trade dependant ratios is quite lower, it's almost the same as the United States, and quite smaller than Korea's.

Third, most of the public demand came from the construction services because the government was spending a huge amount of their budget to support all of the construction projects. But in the private sector, it is the investment by leading firms that has come back to meet with the growing consumption in domestic dem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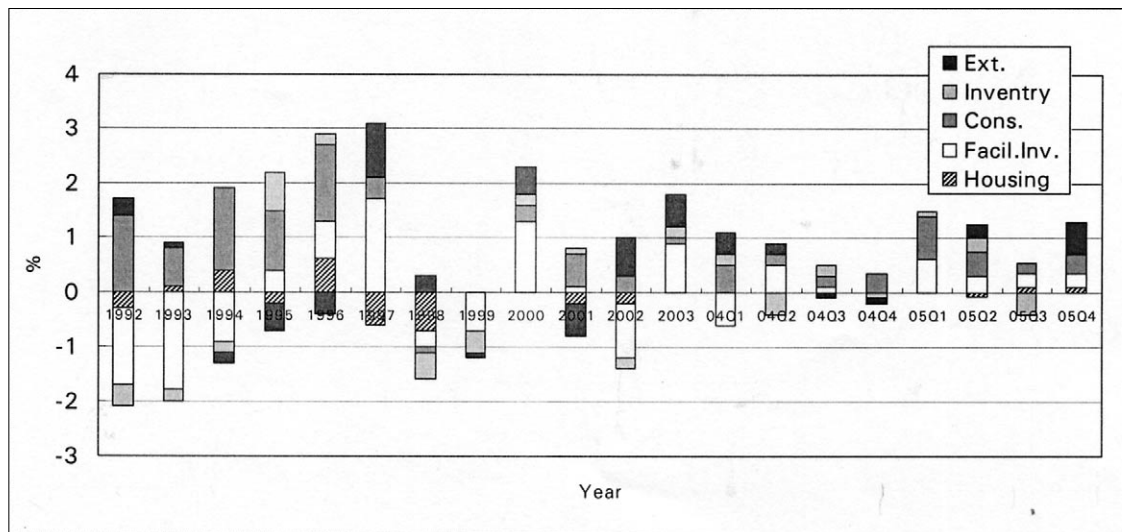
In terms of macro environment, more big news about the Japanese economy is that we are almost finally out of the long period of deflation, which we suffered for a decade. Indeed, Japan has been a very unique economy in which no textbook of economics can explain thus far to have such deflationary pressure consistently.

As I will explain later, the starting point was widening gap between demand and supply after the bubble economy crashed in 1992. The gap had widened in the shrinking cycle of the economy, but finally it has started to narrow, thanks to the picking up consumption and external demand. Structure adjustment in the financial sector has made drastic progress. Of course the adjustment was very much sustained by the upturn in property and stock market, because Japan's main bank system used to have a huge financial asset in stocks of business firms.

〈Figure 1〉 Contribution by public/private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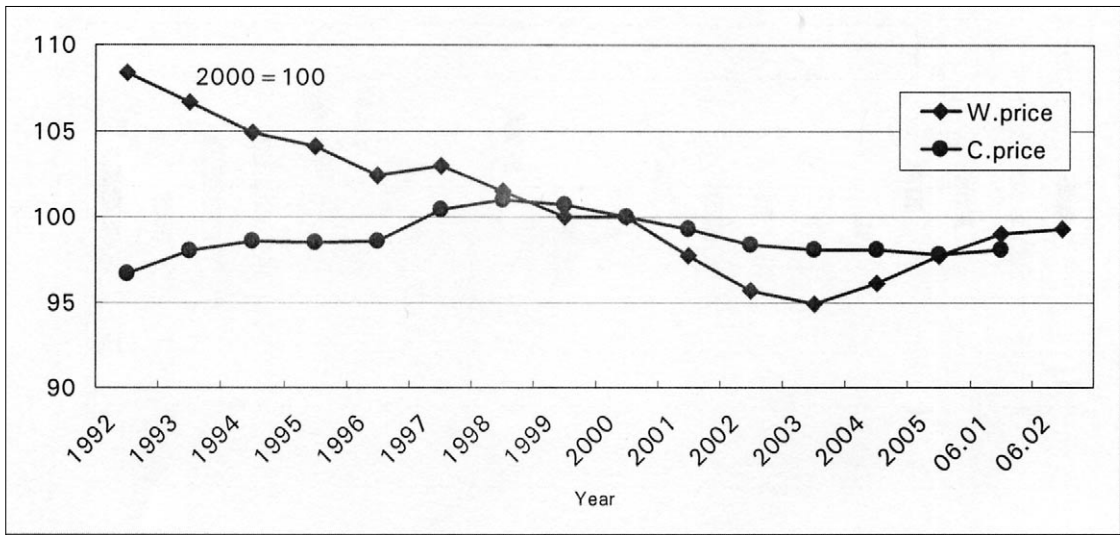
<Figure 2> Contribution by dem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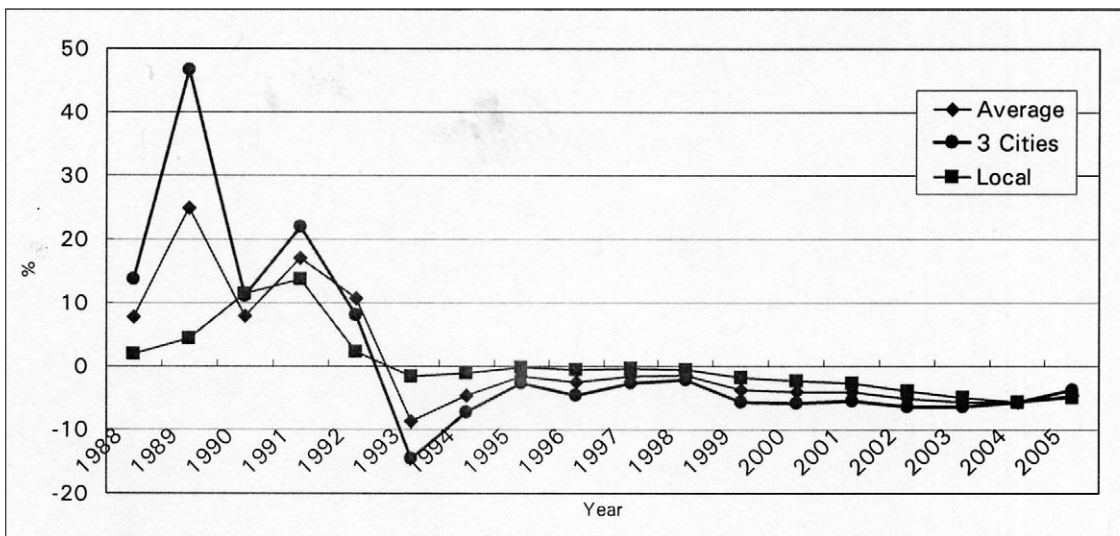
So the growth rate has picked up recently, but even in the last decade we did experience several positive signs, like in 1995 and 2000 (<Figure 1>). 2000 differed from 1995 in that, like in Korea, we saw the peak of the IT bubble in the U.S. so the private sector or IT-related investment in gray color in the <Figure 1> picked up. But for the rest of the decades, actually, the government made almost all contribution, which had not been sustainable. Then after 2001, the gray has consistently contributed to change the structure.

At the beginning of the 1990s, construction was the main reason for the close (<Figure 2>). But after 2001, facility investment started to contribute positively. Around 2001, the exports to both U.S. and China started to grow very rapidly so the external sector has also been contributing, but its portion has not so m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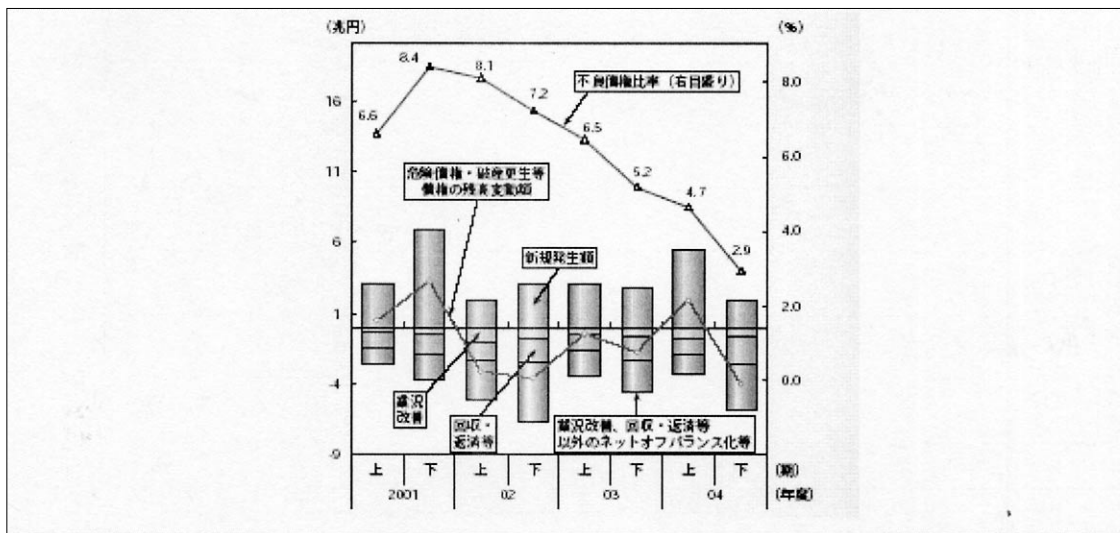
〈Figure 3〉 Getting out of deflation: Prices



〈Figure 4〉 Getting out of deflation: Prop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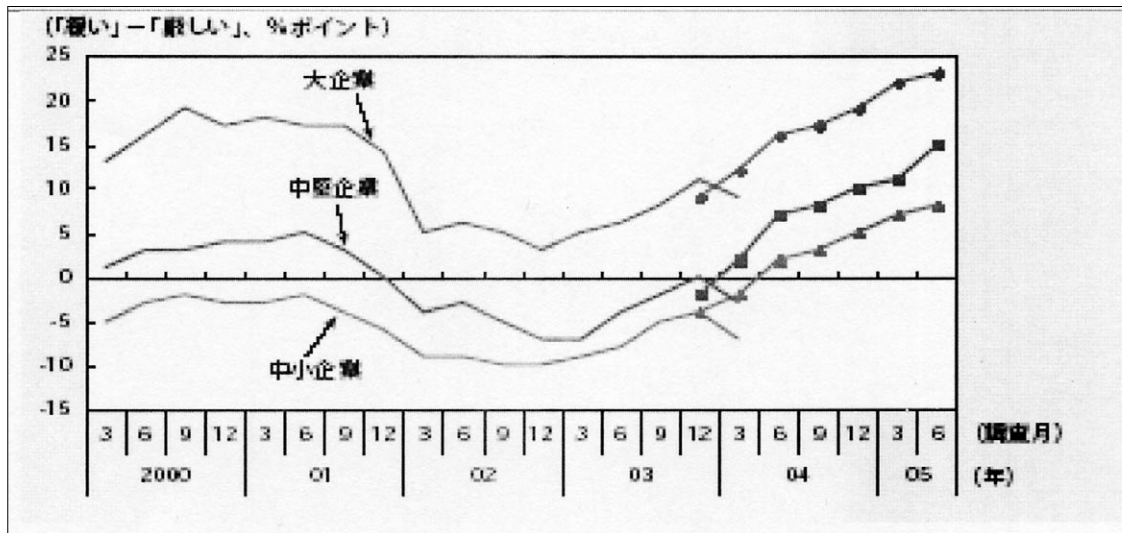
〈Figure 5〉 Getting out of deflation: N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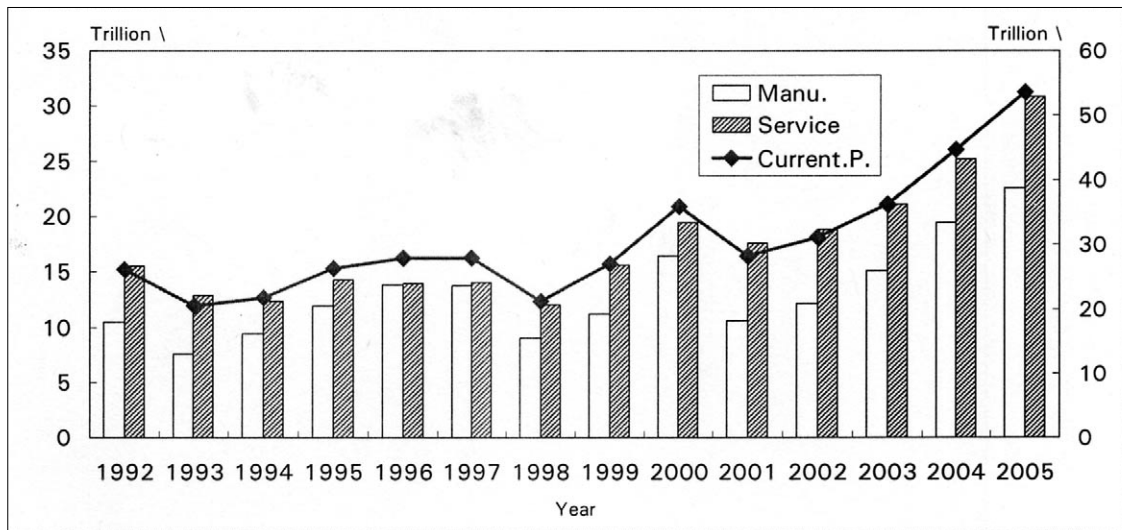
For another issue of deflation, the first indication appeared like in black line to show wholesale price, and Japan has been seeing consistent decline since 2000 (<Figure 3>). Then it started to pick up in 2003, and even the consumer price, though the fluctuation was smaller than the wholesale price, has started to pick up finally in 2006. This was why the Central Bank of Japan has decided to give up the quantitative easing policies recently.

Now turning to the property market, of course everybody knows that the crash of the Japanese economy was triggered by the collapse of the property market bubble. Finally again, the property price especially in Tokyo, Osaka, and Nagoya areas have started to pickup just a little bit in 2005, and we've recorded a plus close in 2006 and the deflationary pressures are getting very small now (Figure 4>). The <Figure 5> shows the ratios of non-performing loans in bank spending, and it is getting smaller and is now less than 3%, so it's not such a problem anymore.

〈Figure 6〉 Getting out of deflation: Financial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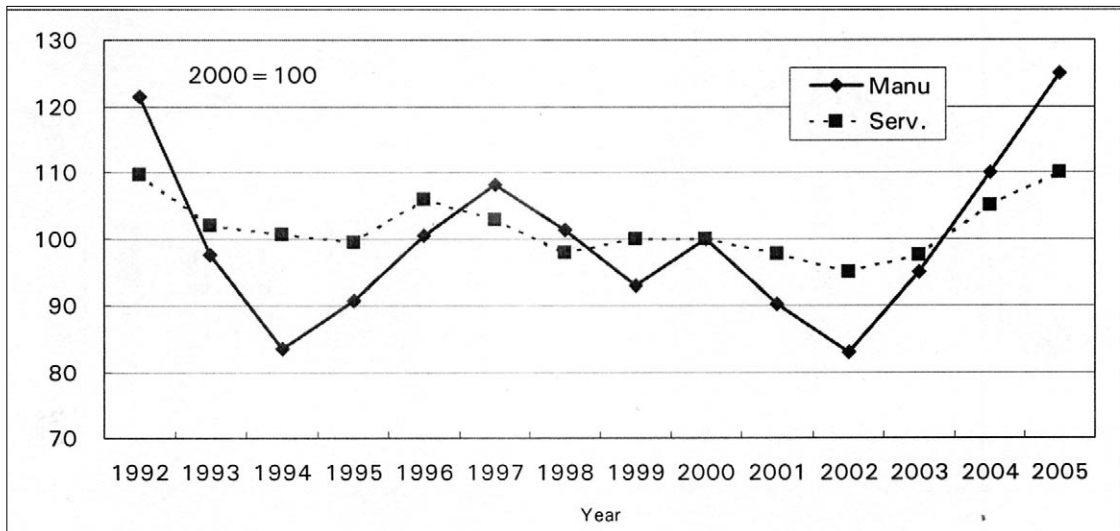
〈Figure 7〉 Getting out of deflation: Company pro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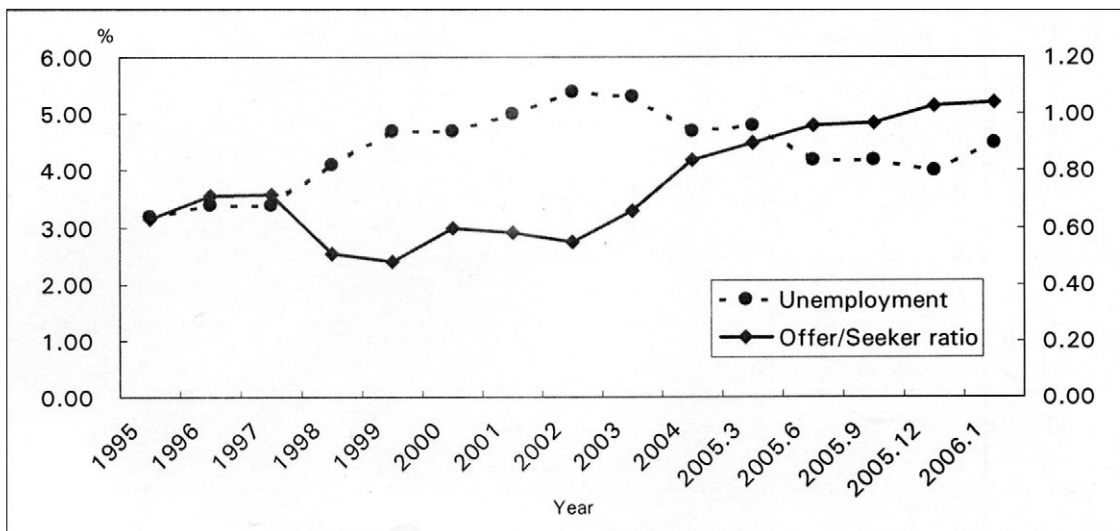
<Figure 6> says that thanks to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financial sector, the financial environment for business firms has been getting better than before. So after hitting the bottom in 2003, if you ask managers whether they feel that borrowing is difficult or easy to compile the index, the percentage that answered easy minus difficult has turned to plus, first by big firms, but soon followed by small firms. Since 2001, company profit has been drastically recovered too. The line in the <Figure 7> shows the

current profit of the private sector, which has got much better than before. It's not only being led by the manufacturing sectors, but also by the service sector, which is less productive in Japan, but has been picking up as well.

〈Figure 8〉 Getting out of deflation: Investment



〈Figure 9〉 Getting out of deflation: Empl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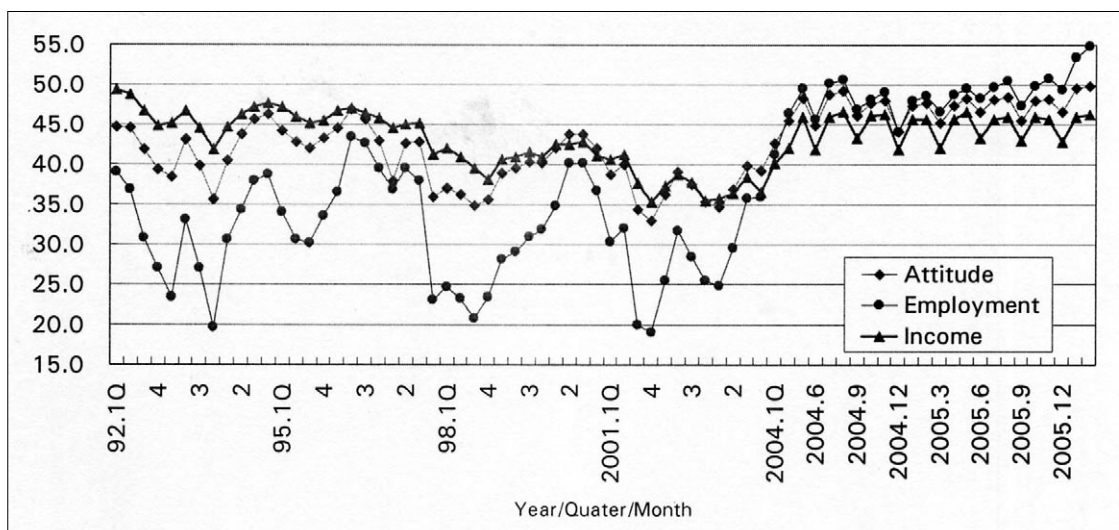
Another investment index, which shows 2000 as 100, shows that the manufacturing sectors, which recorded plus in 1997 has started to decline to hit the bottom in 2002 (〈Figure 8〉). However, it has bounced back very

rapidly so that the level of investment has recovered the same level as the bubble times. The service sector has followed the manufacturing sector.

Thirdly, employment has always been a big issue in Japan. The <Figure 9> shows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offer/seeker ratio for jobs in Japan. Unemployment rate for total population reached its peak in 2002, at around 6% in historical record. However, the offer/seeker ratios have picked up to exceed 1 in 2006, indicating more jobs are offered for job seekers. This was also a big step, and this shows the real income for the laborers and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2004.

So, income is increasing while unemployment rates are dropping. In response to better job security, consumption has also started to pickup gradually (<Figure 10>). The attitude of consumers usually tends to be influenced by the income prospect. But in Japan's case, employment itself is almost synchronized with the attitude of the consumers. Since Japan had been accustomed to a long-term or lifetime employment system, when the structure adjustment started, people were at a loss as to how to design their futures while they had huge mortgages or loans etc. So that has had a big negative impact on the consumer. But this can give way to the prospect of ending the employment adjustment. So the employment prospect and attitudes of consumers are each getting better.

<Figure 10> Getting out of deflation: Consumption



At present, our economy is in a comfortable situation where the deflationary pressures are almost gone, and the so-called triple pressures of over investment, over employment, and over borrowing has diminished somewhat, and there is an optimistic prospect of external demand from the U.S. and China. So if this situation continues, modest recovery, around 2%, is quite probable for several years from in the minds of major Japanese economists. The positive link between firm profits, investment, property, equity markets, employment income, and consumption sustains the optimism.

Even the OECD who used to project the Japanese potential growth rate very negatively like around 1.3% has already corrected their projections to 2% which is a comfortable range for Japan's economy as it tries to get out of the budgetary pressures. Huge public debts requires higher growth rate for its sustainability, as well as intensive government reform. Since public sector debts embrace the serious potential in inflation and interest rate hikes, privatization of many services is inevitable, which were dominated either by the government or quasi-government sector.

Typical sector is medicare and healthcare services. Japan is now a super-aging society, and one out of 5 is over 60, so these services are big concern for them and thus a potentially huge market in Japan, once series of deregulations and rationalization programs work. Also, many Japanese are outspoken on the fact that Japan needs big reform of the education system, as education is now exposed to globalization's competitive pressures. So this sector needs some energy for reform.

In fact, there is much discussion on how to prospect the potential problem in Japan while the aging speed is being accelerated. Aging means less supply of young laborers, and this has potential to influence Japan's economy through declining saving rate. In response, Japan's balance of payment structure has already changed. Now many people, especially Koreans and Chinese still think Japan is making a huge surplus in trade, but

more surplus has started to come from the capital balance rather than the trade balance since last year. This means Japan's economy is much like an old man relying on the pension fund or interest rate coming from abroad.

Not only is the number of younger generations getting smaller, but also many people are complaining that the quality of young labor is deteriorating because they are not trained or educated, and unemployed. Even if you work in a small firm or organization, you learn some skills to be trained socially, but those who are in a part-time job and trained in a manual way, their quality has started to be quite disappointing. So the human capital issues are there.

Energy and resource prospects are also constraints but are potential as well. Japan is a notoriously poorly endowed country for both energy and resources. So as the international price of energy and resources continues, the macro economy has to face with a downward pressure continuously.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constraints can be business opportunities for energy-saving technologies or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the opportunities have made business environment better in Japan than some foreign countries, encouraging investment insides.

For some reason, Japan's attitude towards investment is very different from Korea now. Until around 2003, Japan was full of so-called "hollowing-out" arguments when many firms increased FDI into China intensively while being negative about Japan. However, since then, many companies that went through the structure adjustment tried to come back to the home market seeking country-specific advantages for their survival. The new demands in services as well as better environment as I mentioned before has been pushed by the private sector trying to find demand.

In addition, privatizations of government services may boost further investment in Japan. What is probably most important for the Japanese private sector is the inter-industrial, namely business-to-business network.

If you see the Japanese IT market, it didn't come so drastically from the consumer side like it did in Korea, but it came more from the business sector. For example, Toyota is trying to have very g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 with most of their business counterparts, and they try to sustain the small companies through this information network.

Toyota is also a good example in positive response in changing resource constraints into business opportunities. Oil-poor environment has constantly pressured Toyota for manufacturing super gasoline-conserving cars. The technology frontiers in Japanese firms may be going more for the sectors trying to overcome the constraints step by steps, rather than total innovation of new technology. This seems to be quite a stable direction because first, if your market is under such constraints like aging, oil-hikes, and public sector debts, that automatically means that the Japanese market is the most prominent market for you. So even though the technology risk is there, some may continuously to tackle the issues and that has formed the recent trend of investment coming back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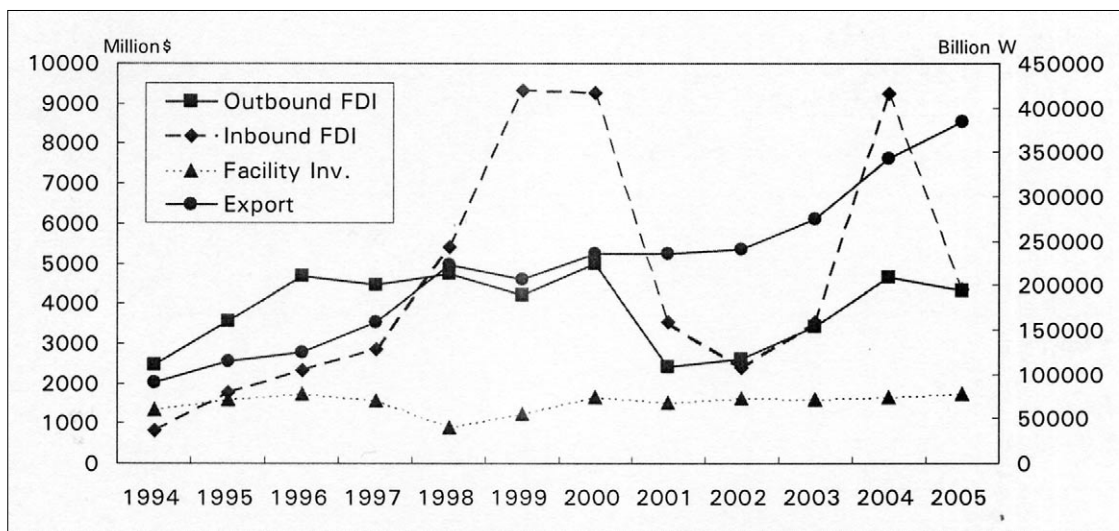
In contrast, Korean firms have opted to go along with globalization intensively and to maintain the comparative advantage amidst the cutthroat competition. But this is partly because the IMF Crisis of 1997 has triggered Korean reform. So while Japanese companies could still rely on the home market even though the consumption is getting worse, Korean domestic demand was ignorable, and the most of the established companies like Samsung and LG have tried to depend more on international market. But, then a question may follow asking "how are you going to make your own country attractive for further investment and innovation?"

Korea does not seem to find this answer yet. For example, there is a missing link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business. In the <Figure 11>, everyone knows, the export is the most robust sector for growth in the Korean economy and it has been growing very fast with much success. However, the line at the bottom is facility investment. In ancient times, 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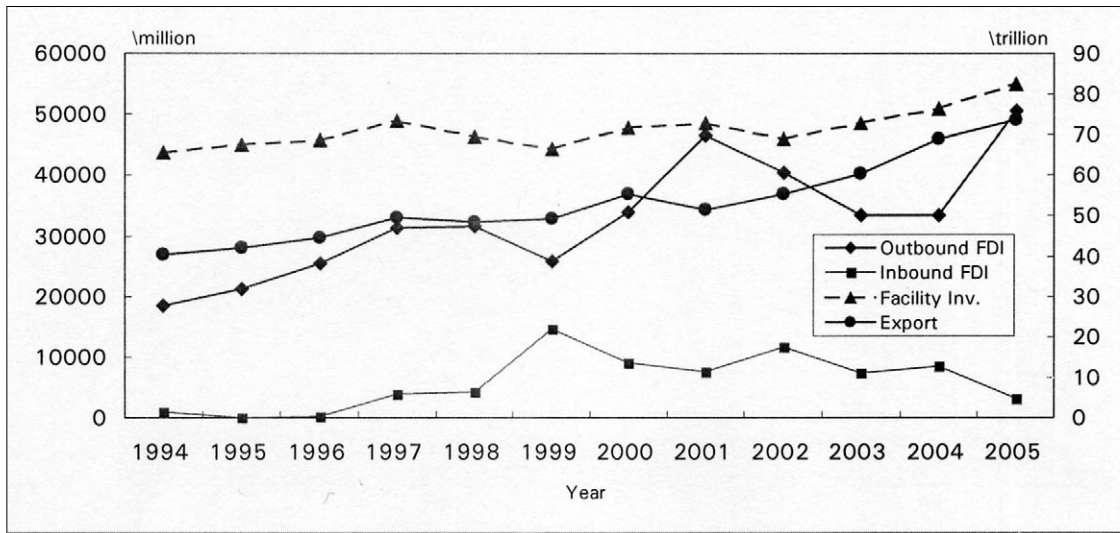
exports pickup, this usually stimulates the facility investment in Korea. But since the financial crisis, linkage has disappeared not really responding for the external demand. On the other hand, inbound FDI, which is stressed by the Korean government, reached the peak right after the financial crisis because of the structure adjustment. It reached another peak in 2004, but it has not been so robust at all since then. On the other hand, outbound FDI is following the export boom, which means Korean firms are much more interested in investing abroad than home. So Korean marketing policies are geared more towards globalization including export-substituting FDI, rather than further investment or innovation at home so that the linkage among investment, employment, income and consumption have been somewhat ignored.

Japan's case is very different. In Japan, the facility investment at home, especially after 2003, started to synchronize more with export (<Figure 12>). Outward FDI reached the peak in 2001 because many companies rushed into Chin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But it has been stabilized after the peak, being taken over by more facility investment.

<Figure 11> Export and Investment (Korea)



〈Figure 12〉 Export and Investment (Japan)



The motives for Japanese investment to come home may relate to the change in business strategies to make the best use of the market and technological resources for their challenges. However, there may be another reason of flexible labor market, which has made home attractive enough for firms.

At the time of restructuring, Japan introduced some sequence to mitigate unemployment. Many firms started adjustment with cutting wages. Thanks to the cooperating culture, major Japanese firms accepted wage cuts, sharing information with labor unions in turn for maintaining jobs. The following option is to transfer of the laborers into some more positive sectors, while hiring part-time jobs with less-paid and less protected status than full-time workers. These processes added almost unexpected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Now many economists say if you take out the flexibility in employment, wages for changing jobs, and the potential for new business, after all, the U.S. is the most flexible labor market, and Germany employment isn't that flexible enough. It is far less flexible regarding wages because their weak unions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but since they're based on industrial

based unions, changing jobs is relatively easier than in Japan. But both Japan and Germany have struggled in creating new business during the structural adjustment period. On the other hand, Japan contrasts from Germany and the U.S. by the wages so far has been far more flexible.

Comparing these three, from our observations, Korea seems to be the least flexible in employment and wages because you have such super-aggressive labor unions. In addition, changing jobs, unless you create a new business, may not be easy too in suffering low level of investment. So discussion is probably centered on how to approach the U.S. levels of flexibility. Th3 <Figure 13> shows the labor disputes in Korea,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cases of labor disputes has picked up and continues to increase. But in Japan, even though the peak of the structure adjustment was 2001-2003, the cases of labor disputes have been declining consistently (<Figur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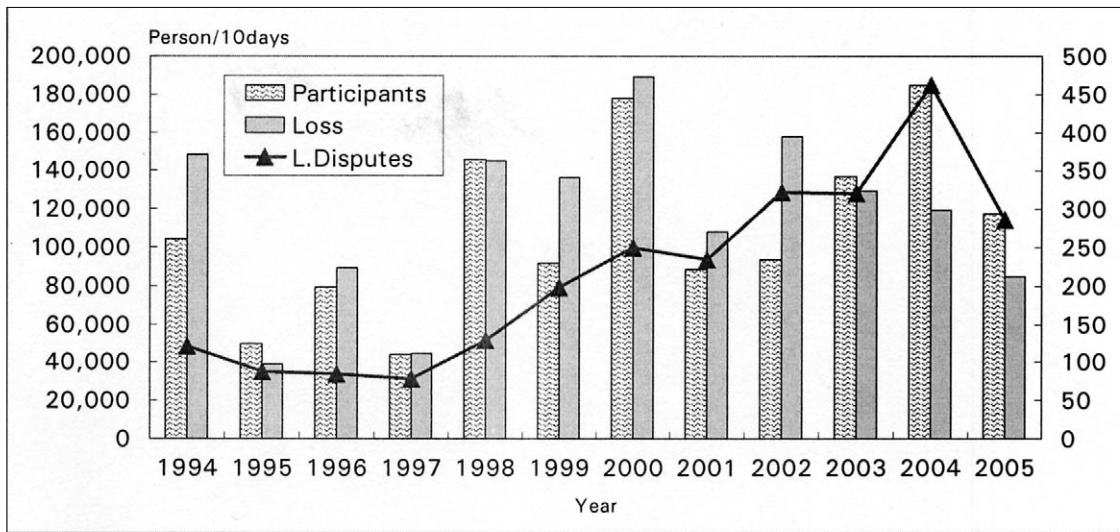
Regarding labor mobility, the recent trend is that the chances of getting a job are smaller than the chances of leaving a job. Japan used to experience the same thing, though I haven't had the chance to study Korea's labor mobility rate, but unlike the expectations in Korea, Japanese labor mobility is high enough, with something like 30% of people trying to get a new job. The recent good news is that the chances of getting a job are better. Since business has picked up, people have been trying to find better jobs, which is why the rate of people leaving their jobs has picked up, and entering rate is just following the trend.

Japanese know that manufacturing is still crucial for their economy, but it was more the service sector than manufacturing that has created more jobs for the Japanese. If we classify the different types of businesses, most of the sectors that have created jobs are first Medicare, second other service industries including the IT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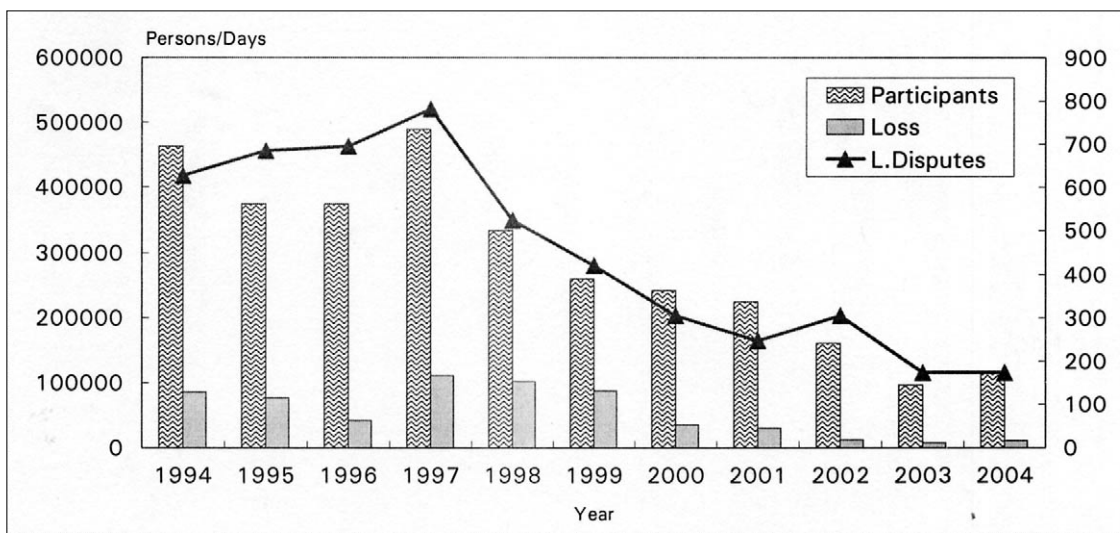
The Japanese experience showed that there had been a dialogue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In contrast, since the financial crisis, Korean firms

have been pressured constantly by the financial organization and investors. In that sense, there is no incentive for the corporate managers to try to have discussions with labor unions when the company has more concerns and provides better promotions for financial managers. In Japan labor and human capital management has been mostly the top criteria, especially in manufacturing sector. Even now still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regarded crucial in relation to skill accumulation and technology aspects. So how to motivate labor management may be an issue in Korea.

〈Figure 13〉 Labor Disputes (Korea)



〈Figure 14〉 Labor Disputes (Japan)



Finally, what's most impressive about the Japanese labor market is the sophistication of placement services. At one time Japanese placement services was totally dominated by the government, but thanks to all the market demands, the service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move and get a new job has become very sophisticated especially in the past five years. Placement services have developed with outplacement services.

Another implication for Korea is the issue of creating jobs for the younger generation. Japan also suffered by a high unemployment rate around 10% for people of those who are in their twenties. Finally, the employment rate has started to drop, and more than 97% of college graduates are expected to find a new job in 2006. The biggest reason is that Japan has an intensive retirement by baby-boomers in the coming five years, and younger labor force has turned to be very precious to complement them. However, not only in quantitative change but quality issue has also given incentives for the private sector to train younger generation.

Many firms have found the quality of labor in baby-boomer generation is superior to younger ones without good training and experiences, and they are now trying to promote skill and technology transfer across the generations. So they try to keep the older employees on for extra five or so years to train the younger workers to maintain the skill levels of their workers. At the same time, the younger generation of workers is trying to educate the older generation on developments in the IT applications for sharpening their skills. So this seems to be a good combination of the two generations, which strengthens the labor market. Probably the most important message is that the efforts are motivated by private sector's own needs for better competitiveness, rather than government enforcement by political incentives.

The change in the labor market is also sustained by the different values and ethics about jobs in younger generation, which are very different even from my generation. In the early 1980s when our generation was trying to

get a job and we were asked why we wanted the job, we answered that we wanted to challenge our ability or train ourselves. This kind of attitude has decreased in Japanese society, and most people are now answering that they want a job to make their life easier so they can spend money to make their life more enjoyable. Upon this different value, labor market has to be flexible, for you cannot expect strong commitment towards the long-term contract for younger generation anymore.

Finally another issue about job creation in Korea may relate to FTA negotiation with the U.S., which is to make a very broad range of economic negotiations. I would suggest the significance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negotiations with the FTA for Korea. When it comes to the prospect of human capital, especially the service, MRA with an agreement on movement of persons may work in creating new business and jobs in Korea. We had a common qualifications standard for IT technologies between Japan and Korea, but these kinds of negotiations will indirectly help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in the end.

My conclusion is that Japan's experience proved that after all, consistent reform is the only resource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investment is the most crucial issue for the Korean economy because investment can only upgrade your growth potential without inflation. So for that purpose, service sector integrations with a bigger market is crucial because the Korean domestic market is limited. And labor market reform also needs reform, but cooperation and dialogue among the private sectors are much more crucial than the government pressures. Without collaboration, the realistic labor market flexibility is difficult only by politically motivated rules and rule enforcement. Finally, the human recourse management program is so crucial for us with aging society, and in that field, probably Japan and Korea have a lot of room to cooperate each other.

Questions & Answers

[Q] What implications do you think the rise of China, as an economic locomotive region will have for Japan and Korea for economic policy in short and long-term?

[Q] How about the recent trend of money supply?

[Q] I think if you look at the regional context, this is an area which is going through another spurt of rapid economic growth. In my opinion very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 U.S. is running a huge balance of payment deficit and I am just wondering how long that is sustainable. If the U.S. reduces its balance of payments deficit and reduces economic activity, I think it will have a major impact on china and indirectly on all the countries that send the parts to china to be assembled. Based on the experience in Europe, when you start hitting a rough spot like this, that's when the real weaknesses and dangers of a rigid labor market start showing. If you hit a period of low growth, and stagnation, then you'll see that the countries that have serious labor market issues stop suffering and those with a very flexible labor market tend to go through these rough spots much more easily. In other words, a downturn tends to accentu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lexible and inflexible labor markets. I'd like to hear you comment on that.

[A] In terms of your first question on the rise of China, that is related to the third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the potential shock that may come from the crash of the dollar. Of course Japan is very dependant on the U.S. market especially when we look into the structure of Japanese profit which is becoming bigger on the overseas market. So the crash of the U.S. economy might be a shock and since China is even more dependent on the U.S. economy than Japan, the crash of the U.S. economy may in turn crash the Chinese economy. So far, China's rise has been a big chance for Japan to sustain the reform, and we are very appreciating Chinese sustainable growth in the latter 1990s and we are, now. Considering the possible macro

adjustment in the global economy, we should absolutely promote further regional integration and cooperation to mitigate the potential shock. However, as everybody knows, the political disputes between Japan and China prevent an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may set further higher walls even in economic exchange.

Financial cooperation is generally better going on than FTAs, for no one wants to repeat the financial crisis. Everyone is now interested in a common Asian currency starting from the basket system and Asian Bond market, so the effort is still there despite the political disputes. However, the integration efforts should be integrated between the real sector and financial sector. In fact, East Asia has still a lot of challenges for the real economy integration, including labor market flexibilities. I am not so negative about the prospect of the labor market in Japan because Japanese don't believe in a government program and they have been trying to survive with their own efforts and it has been somewhat successful so far. So labor market flexibility won't bother the rising competition from China and India etc. However, I am less confident whether Korean labor market is flexible enough to mitigate integrating shocks including the competition from China. Labor market flexibility was a key issue in European integration, and probably Korea and other East Asian economies need more serious reform in labor market while paying enough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Regarding the financial issues in the second question, the historical measure of quantitative easy money policies by the Bank of Japan have finally ended. The purpose has been to supply as much money as people need in the market to prevent financial shrinkage. One thing that has changed is that now we have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system to deal with massive non-performing loans, so that panicky shrinkage coming from uncertainties in the market will not be likely any more. This may be an important reason for the BOJ to abandon the easy money policy, in addition to the smaller deflationary pressures on the macro economy.

[Q] What would be an adequate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to achieve recovery, and what would be the best industrial policy to achieve increased facility investments by the private sector of Korea in your view?

[A] Regarding your first question, I think you should ask Dr. SaKong rather than myself, but I would say Korea still has high potential to mature, around 5-6%. If you consider the U.S., which is a matured economy, they can still grow at the rate of 3-4%, so I think the Korean economy, especially in the last three years has been under performing. And what's important about the potential growth rate is the investment as you pointed out. If we see stagnant Korean facility investment, even the potential growth rate will be withdrawn continuously. In short term, as long as the export sector is not bothered by the won appreciation against the dollar, I think 4-5% is a quite comfortable range for the Korean economy.

But my point is that even Japanese potential growth rate came back to 2% with all that facility investment in those three years, you may have lots of chances to go up to 6% of gross which isn't so unrealistic for Korea. Then the issue is how to stimulate the private investment. I think one of the most realistic policy measures is to promote further integration with the bigger market while making the best efforts to accelerate reform in the labor market. Chinese and Japanese markets should be very important for Korea's growth because manufacturing is competing in the global market but the service sector which Korean policy makers seem to be so interested in, has smaller potential because of the population size. Korea is in a good position geographically and the potential of human capital in Korea is very high because people are very highly educated and there are many who speak English well, and people can be very productive once they're provided right competition incentives. Market integration with neighboring economies will stimulate service and investment in Korea while promoting innovation.

[Q] Would you give us your comments on starting an FTA negotiation

with the Korea-U.S.? What kind of values is possible that an FTA with the U.S. will bring? I would like to hear about the benefits of a possible future Japan-Korea FTA?

[A] I think these are the kind of decisions that take political courage to handle the U.S. for the Korean side. If you stick to the potential benefit, I would say the U.S. would be the best partner for Korea because the people educated in the U.S. and the information and deepness and size of the market. Whether this is politically effective or not is not certain, but I hope the achievement of the Korea-U.S. FTA will force Japan to open their market further. Probably by principle, Korea should be more strategic and prepared enough in FTA negotiation, having a consistent strategy on how to link the external shock for further reform and increasing growth potential. The major effects of Japan-Korea FTA will be somewhat similar to Korea-U.S. FTA in that better chances for sophisticating industrial structure especially in services and SMEs will be promoted by more competitive environment and more free movement of economic factors.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